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신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반복적 행위를 통한 자아표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정 은 지

# 반복적 행위를 통한 자아표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신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정 은 지

# 인 준 서

정은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8년 ‘하찮아져도 괜찮은 곳’이라는 석사 학위 청구 전시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작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행위들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집적된 선들과 이미지를 통한 자아표현 방법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한 논문이다.

본인은 반복된 이미지의 집적을 바탕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는 그리는 행위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일기를 써 내려가듯 종이 위에 그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리는 행위는 본인에게 있어 자아의 인식과 표출이라는 중요한 역할로서 행해지고 있고, 그 중 반복적인 작업방식이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작업에 나타나는 이러한 작업방식은 성장 배경에 있어 본인의 내면세계를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아를 꾸밈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도피처와도 같은 공간이 필요했고, 이러한 이상적 공간을 반복적 그리기 행위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 안에서 해소해 나아가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한 개인의 꾸밈없는 자아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은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사람은 일생동안 끊임없이 본인의 자아를 인식하고 더 나은 자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아가 아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거짓 없는 내면과 마주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본인은 그리기라는 작업 행위를 통해 빠르고 다양한 매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자아 표현의 수단을 그리기 행위로서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내적 도피처를 찾아 나아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자 했다.

화면을 그저 뽁뽁하게 채우는 초반 작업물 부터 점차 구도와 개체들이 생겨나는 후반 작업들까지 어떠한 내면의 감정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작업 활동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반복적 그리기 행위가 감정적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4
1. 예술 작품에서의 반복행위 .....	4
2. 행위를 통한 자아표출 .....	9
3. 작품설명 .....	11
III. 결론 .....	28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1】 정은지, <Forest>, 장지에 목탄, 116.8x91cm, 2016 .....	11
【작품2】 정은지, <성불>, 장지에 목탄, 162.2x130.3cm, 2016 .....	13
【작품3】 정은지, <escape>, 장지에 먹, 목탄, 145.5x112cm, 2016 .....	15
【작품4】 정은지, <escape II>, 장지에 먹, 목탄, 145.5x56cm, 2016 .....	16
【작품5】 정은지, <성불>, 장지에 목탄, 100x80.3cm, 2016 .....	18
【작품6】 정은지, <성불>, 장지에 목탄, 100x80.3cm, 2016 .....	18
【작품7】 정은지, <까마귀가 날아도 배는 안 떨어진다>, 장지에 목탄, 116x91cm, 2018 .....	19
【작품8】 정은지, <초행길>, 장지에 목탄, 72.7x60.6cm, 2018 .....	20
【작품9】 정은지, <발자국이 남지 않는 길>, 미디어, 2018 .....	20
【작품10】 정은지, <empty forest>, 장지에 목탄, 100x80.3cm, 2018 .....	22
【작품11】 정은지, <하얀밤>, 장지에 목탄, 162.2x130.3cm, 2018 .....	24
【작품12】 정은지, <발화점>, 장지에 목탄, 27.3x22cm, 2018 .....	25
【작품13】 정은지, <하얀밤 II>, 장지에 목탄, 130x48cm, 2018 .....	26
【작품14】 정은지, <호수가 있는 밤>, 장지에 목탄, 116x91cm, 2018 .....	26

## 도 판 목 차

[도판1] 최병소, <Untitled>, pencil on Newspaper, 55x41cm, 2015 ..... 6

[도판2] 정상화, <Untitled85\_2\_5>, Acrylic on canvas, 130x130cm, 1985 ..... 7

## I. 서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아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욕구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요인이며,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 충족도에 따라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간다.<sup>1)</sup>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표현해 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욕구의 최종단계인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방법과 행위들은 모두 다르다.

미디어의 발달로 현대인들에게 있어 자아를 표현해 내는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도 활발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놓는다. 자신을 과시하는 사진과 글들도 있는 반면, 심리적 고독감에 대한 글들과 도피처, 안식처라는 키워드들도 심심찮게 보인다.

본인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자아에 대한 고민들을 살펴보며, 본인에게 있어 자아를 표현해 내는 수단과, 안식감을 주는 도피처는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다.

작업은 작가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본인은 작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온전히 표현해 내고 담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아를 표현하고 그림으로서 이끌어 내는 과정에는 여러 내적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 할 때 스스로를 고립(isolation) 시킬 수 있는 도피처를 갈구 하곤 했다.

고립(isolation)이란 도피기제(escape mechanism)<sup>2)</sup>의 하나로 타인과의 접촉이나

---

1)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설 : 인간의 욕구는 본디 타고난 것이며 그것의 중요성과 강도에 따라 다섯단계로 분류한 아브라함 매슬로(Abraham.H.Maslow)의 이론. 위키백과

2) 도피기제(Escape Mechanism) : 심리학 용어로, 받아드릴 수 없는 현실, 고통, 위협 등을 거부하고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방어기제

도피기제(Escape Mechanism)의 종류 : 부인(denial), 억압(repression), 고립(isolation), 퇴행(regression), 고착(fixation), 백일몽(daydream), 행동화(acting out), 해리(dissociation) . 두산백과 doopedia.

상황에 대한 직면을 하면서 은둔하거나 자기 내부로 파고드는 것인데, 본인에게 있어 고립의 행위와 장소는 모두 숲이라는 작품 속 배경이 되었다.

나무가 빼곡한 숲은 고립이라는 단어와 걸맞게 어둡고 자칫 음산한 분위기를 뿜어내기도 한다. 본인에게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스스로가 고립됨으로써 그 안에서 내 안의 나와 마주하며 근본 없는 고민과 걱정들을 다 털어내고 텅 빈 마음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다.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본인이 그려나가는 나무 숲이라는 공간이며, 나무 숲을 그려내는 순간 자체가 스스로와의 대화 방법이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숲을 그려 나아가며 마음 안의 잡념들을 털어내는 과정인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되어주는 배경인 이 숲은 2016년 접했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공허한 십자가』<sup>3)</sup>에서 영감을 받았다.

소설 속 숲은 주인공이 자신의 아이를 낙태하고 묻어두었던 산이기도 하고,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또는 삶이 버거워 극단적 선택을 할 때면 찾는 장소이기도 했다. 주인공에게 있어서 그 숲은 도피처가 되었던 것이다. 소설 속에서 숲은 수해(樹海) 즉, 숲의 바다라고 표현되었는데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숲의 이미지가 강렬하여 화폭에 담아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소설 속의 숲처럼 나만의 도피처가 되어주는 곳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작업 속 숲이라는 공간에서 그것이 충족되게 되었다.

나의 고독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작업 속 숲이라는 공간에 간혀 온전한 고독의 순간을 통해 비로소 해소되는 고독감에 대해 깨달으며 더 효과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위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반복적 선묘로 화면을 채우며, 이와 같은 반복적 행위에 대한 의미와 반복적 선묘의 특징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

3) 히가시노 게이고(Higashino Keigo). 이선희 옮김. 『공허한 십자가』. 자음과 모음. 2014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론의 I 장에서는 일상이나 예술 작품에 있어서의 반복행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현대인들이 자아를 표출 해 내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본인과 같이 작품 활동을 자아표출의 수단으로 이루어 내는 작가들을 분석하고 연구해 보려고 한다.

III 장에서는 본인의 작품 이미지를 통하여 작품 속에서의 반복의 의미와 반복적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이 본인에게 주는 역할에 대해 연구해 보고,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여백의 이미지와 이중적인 제목의 의미들에 대해 서술하며, 작업과정과 재료, 그리고 표현방법에 있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예술작품에서의 반복행위

예술 작품에 있어 조형의 기본적인 요인을 만들어내는 조형요소에는 점, 선, 면, 형태, 색, 질감, 공간, 명암이 포함된다. 조형원리는 이러한 시각적 조형요소들이 작품 안에서 서로 어떠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작품을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작품에 있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각각의 조형요소들을 어떠한 실체를 형성해 내기 위해 유기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구조적 계획이라 설명할 수 있다.

본인의 작업도 이렇듯 조형요소들을 결합한 조형원리를 통하여 전체와 부분간의 유기적 짜임새를 이루고 있다. 조형원리에는 리듬, 대비, 비례, 대칭, 균형, 점이, 강조, 반복, 변화, 통일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 리듬, 반복이 작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작품 속에서 주가 되어 나타나는 요소인 선(線)은 그림의 배경인 숲의 윤곽을 나타내줌과 동시에, 공간을 구분하기도 하며, 때로 덩어리를 암시한다. 또 대칭, 조화, 균형, 반복 등의 조형 원리들이 선(線)에 의하여 작품 속에 나타난다.

이러한 선(線)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건축물이나, 기둥, 골조 등에서 직선으로서 발견 할 수 있고, 갈대나 능선 등의 자연 또는 한옥의 처마 등에서 곡선의 요소로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선(線)은 표면을 장식해주는 기본적인 요소로써 속도감, 강약의 대비, 질고 흐림 등 선(線)자체의 변화를 통해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의도와 느낌을 강화시켜 주며 본인의 작품 속에서 개성, 감정 표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線)들의 변화에 따

라서 2차원적 평면 안에서 형태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형태는 우리에게 시각적, 촉각적으로 양감과 공간감을 느끼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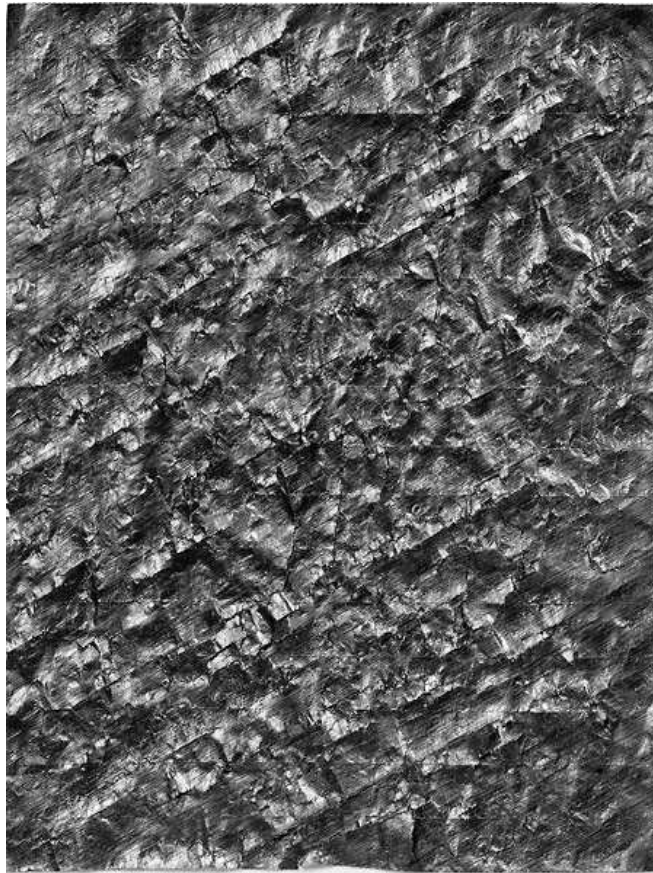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조형원리 중 리듬과 반복 또한 이러한 선(線)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데, 본인의 작품 속에서도 동일한 선(線)과 흑백으로 이루어진 색을 통한 반복적인 요소에서 리듬감과 운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리듬감은 같은 것이 연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을 말하고, 반복에 의하여 리듬이 나타나지만 자칫 단조롭게 보일 수도 있다.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도에 의한 물결무늬, 전통가옥의 지붕 기와에서 보이는 연속적인 선(線) 등에서 이러한 선(線)의 반복적인 원리들을 발견 할 수 있지만, 나름의 리듬감을 가지고 유기적 관계를 이뤄낸다.

반복이라는 말은 같은 동작을 연속적으로 다시 함으로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처리과정을 말한다. 소재와 재료의 반복, 선(線)을 통한 반복, 드로잉의 반복 등이 그것인데,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는 단순한 이미지로서의 반복보다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듯 반복적인 행위로서 인상적인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로 한국의 최병소 (1943~) 작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신문지 위에 작업을 한다. 볼펜과 연필같은 날카로운 재료를 사용해 선을 긋는 행위를 반복하며 신문지를 덮어내고, 그러한 반복된 행위를 통한 마찰에 의해 신문지가 찢어질 때까지 작업을 지속해간다.

그의 작업을 보면 신문지 위에 그랬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작업을 거쳐 간 자리엔 그 어떤 글자도 인쇄된 어느것도 알아볼 수 없게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신한다. 또 본래의 신문지였던 종이 또한 흑연과 볼펜이 입혀지며 마치 구겨진 철판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그의 작업행위는 그의 성장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태어나,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혼란의 시대에서 자라며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경험했다고 한

다. 그러한 그의 배경이 종이위에 감정적으로 고스란히 나타나며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지우는 것만큼 편한 것이 없으며,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라 언급했는데, 이것은 연구자의 작업 행위로서 채워나아가며 비워지는 내면의 감정변화와 유사성을 보인다.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행위를 통한 조형성이 최병소 작가에서도 보여지는 것이다. 최병소 작가 또한 하나의 행동으로 단적인 구성을 만들고 그 화면에서 어떠한 힘의 조형성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sup>4)</sup>



[도판 1] 최병소, Untitled, pencil on Newspaper, 55x41cm, 2015

4) 이나영, 「추상미술과 자아의 감성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25



[도판 2] 정상화,Untitled85\_2\_5,Acrylic on canvas,130x130cm,1985

본인의 작업은 행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복이라는 과정의 예술이다. 이러한 의도와 가장 부합하는 한국의 작가로 미니멀리스트이자 단색화로 유명한 정상화(1932~)작가를 언급 할 수 있는데, 그는 60년대와 7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에게는 물론, 현재까지도 한국의 현대미술에 중대한 영향을 준 작가이다. 그의 작업은 주로 캔버스에 페인팅을 하는 대신 ‘뜯어내기’와 ‘채워 넣기’ 같은 반복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기법은 현재까지도 그의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상화의 작업은 캔버스를 틀에서 벗기고 다시 매기거나 접었다 편 다음 물감을 겹쳐 바르는 방식으로 매우 독특하다. 다른 사람이 흉내내기 어려운 이 노동 집약적인 과정을 통해 작품 한 점이 완성되는데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

작가는 매 순간 엄청난 집중력으로 화면에 몰입하는데, 그럴수록 내면은 평온하게 비어간다.

[도판 4]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그의 작업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어느 작업도 유사하지 않다. 같은 백색이라 할지라도 구성하는 요소가 작업마다 다르고 개별 격자들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색채와 높낮이가 모두 다르기에 화면은 결코 같은 표정과 색감을 지닐 수가 없다. 그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물을 정의하고 동시에 작품이 갖는 모든 특성들을 서술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는 완성된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작업 과정을 시각화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는다.<sup>5)</sup> 본인의 작업도 정상화 작가에게 과정이 갖는 의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발견 할 수 있다. 흑색과 백색만을 이용한 반복적인 그리기 과정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그로인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과정에서 나타난 내적 감정과, 표출 해 내고자 하는 자아를 담고 있는 것이다.

---

5) <http://www.galleryhyundai.com/?c=artist&s=1&gbn=view&gp=1&ix=70> , 갤러리 현대.

## 2. 행위를 통한 자아표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아를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작가에게 있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표현 수단이라 생각한다. 그 중 특히나 본인에게는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자아 표출의 방법이다. 작품은 언뜻 보면 모두 똑같은 모양과 패턴을 가진 숲처럼 보이지만, 모든 나무 숲 그림마다 온도, 분위기, 감정, 깊이, 꼬임의 형태, 양감 등이 모두 다르다. 심지어는 바로 이전 작업의 숲 모양을 스스로 똑같이 그려내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본인의 감정은 물론 내면의 자아를 표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은 작업 당시 본인의 감정상태, 내면의 분위기 등이 기록되어져 있는 일기장과 같은 역할이 되어주고, 나의 존재감을 그림으로서 형상화한다. 이렇듯 작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적 측면은 작품제작에 있어 의미를 지니며 자신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sup>6)</sup> 작품에는 그리는 이의 지극히 주관적인 사고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반영되어지기 때문이다. 무의식 속에서 자아표현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우리는 자는 동안 꾸는 꿈에서조차 자아를 표출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꿈은 주로 과거에 경험 하거나 마음에 담아 두었던 일의 반복된 재생일 수도 있고, 욕망을 갈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될 수도 있다. 이런 무의식 속에서 표출되는 자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나 혹은 스스로 억압하고 금기되었던 것들에 의한 표상이 꿈을 통해 자유롭게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철저히 억압 되어져 있던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어쩌면 깨어 있을 때 의식 속에 나타나는 행위를 통한 자아표출 만큼이나 비중 있고 필요한 과

6) 최윤정, 「감성을 통한 자아표출과 공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8

정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우리에게 자아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자아가 표출되지 못하고 억압된다면 우리는 무의식 안에서 그 억압을 표출해 내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법과 행위들로 건강하게 자아를 표출해 내야한다. 작업을 만들어내는 작가로서 예술 행위를 통해 자아를 표출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와 마주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예술에서 보는 것이란 직관(直觀)을 의미한다. 이 직관은 지적 지식이 아니라 지각(知覺)에 의해서 대상을 내부에 꿰고 들어가 대상이 가진 내성과의 공감이며 그것은 상상 형식을 띄게 된다. 상상을 토대로 하여 출발한 사고 작용은 하나의 대상을 관계시키면서 통일성과 일반성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명료한 지각에서 벗어나 사물의 원 모습을 보게 된다. 즉 “예술은 인간을 존재의 진실로 인도한다.”<sup>7)</sup> 이처럼 자아표출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방식과 행위로든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자기 인식이다. 작업을 통한 예술 표현으로서 자기 인식을 행하는 작가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치 본인의 반복적 행위가 그것인데, 선을 긋는 행위가 예술가의 심상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선과 생명의 형식적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sup>8)</sup>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반복적으로 그려나가는 선을 통해 숲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숲 속 나무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만들어진 숲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 받으며 진정한 자아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7) 조요한, 『예술 철학』, 미술문화, 2003, p.33

8) 장시울, 「선(線)의 반복을 통한 생명 이미지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21

### 3. 작품설명

작업은 예술가의 자기표현수단이다. 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과정들과 그에 따른 결과는 작가를 대변함과 동시에 그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들과의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본인의 작품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반복이라는 주제와 밀접했으며, 여기에서의 반복은 소재와 재료의 반복, 이미지 생성 과정의 반복, 그려나가는 행위의 반복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복적 작업과정은 본인을 고독의 공간에 갇히게 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고독을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을 제공해준다. 본인의 작품제작 과정을 통해 반복되어 형성되는 이미지는 정적(靜的)이면서도 동적(動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초기 작업과정인 【작품 1】 과 【작품 2】 를 보면 특별한 화면의 구성이 없이 화면 안을 그저 뻑뻑하게만 채워 넣는 것에 몰두했다. 【작품 1】 Forest를 살펴보면 마치 가위로 종이를 오린 후 겹쳐 붙인 듯한 구성을 보인다. 이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반복적 행위를 통해 그리기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당

장에 처해 있는 상황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소는 그저 내면의 스트레스에 대면하려 하지 않고, 행위에 집중하며 잊어내는 1차원적 해소가 되었고,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은 본인이 왜 스스로 고독감을 취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인지해 내는 것이었다. 본인은 텅 빈 화면을 목탄만을 이용해 가득 채워 나가면서 마치 현재 나의 마음상태를 저 녁쿨인지 나무인지 모를 숲속에 감춰두고 덮어 버리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 그러한 욕구들을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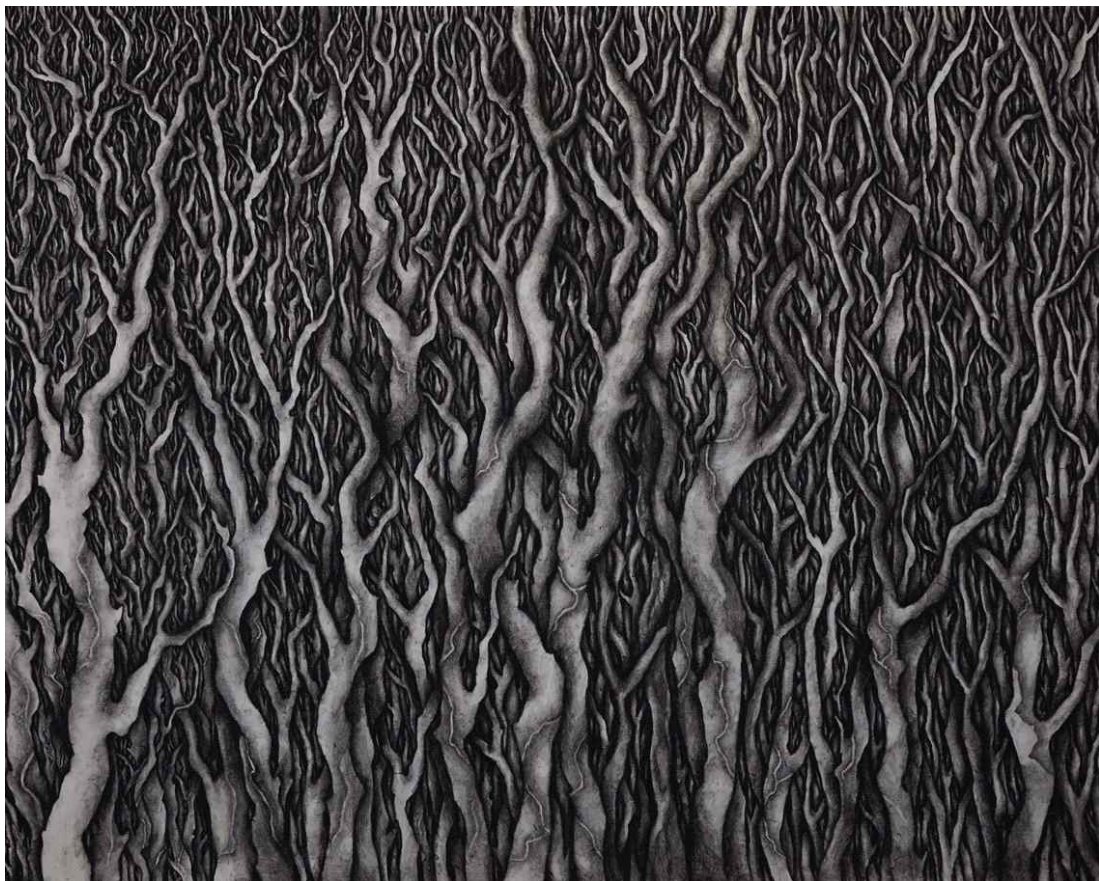
【작품 1】 forest, 장지에 목탄,  
116.8x91cm, 2016

를 통해 해소시켰다. 작업에 몰두해 내는 순간만큼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많은 정답 없는 고민들이 사라졌고,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숲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아갈 수 있었다. 나의 작업은 자연물을 그린 듯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자연의 풍경을 담은 것이 아니고, 상상속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무의식속에 반복적 그리기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로서 보여 진다.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욕구와 억압에 대해 그림으로 풀어내고 풍경화를 연상하는 자연물을 그렸지만 실제 하지 않는 풍경이라는 점에서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같은 관념 산수화의 요소를 보인다. 본인의 작업은 내면의 고통을 풀어내고자 하는 장치이며 수단이다. 앞서 1장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은 어떤 행위와 방식으로든 타인과 밀접히 지내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주관되고 독자적인 삶을 원하는 충동을 겪고, 본인도 불가피하게 그러한 내면의 이중성에 부딪히며 해소해 나가야 할 본인만의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읽게 된 한권의 책은 본인에게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반복적인 행위는 본인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반복강박(repetition compulsion)’이라는 이론을 들 수 있는데, 정신분석 이론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sup>9)</sup>에 따르면 반복강박의 근본적인 이유로서 원시적인 파괴 또는 죽음의 충동이라는 이론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본인의 작업 속 나타나는 반복강박은 이러한 트라우마(trauma)에 비롯되지 나타나는 행위라기 보다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현실의 감각을 무더지게 만들 고자 하는 역할을 한다.

---

9)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년~1939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위키백과

【작품 2】 ‘성불’을 보면 좀 더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큰 화면 안에 넉쿨을 연상시키는 나무숲을 목탄을 이용해 끊임없이 채워 넣으며 명암과 양감을 나타내었고, 작품의 제목 또한 종교적인 단어로써 죽음과 관련되어 보인다. 제목의 작명 과정은 작업의 초기 제작 배경이 되었던 소설 『공허한 십자가』를 읽고 떠오르게 되었다.



【작품 2】 성불\_장지에 목탄\_162.2x130.3cm\_2016

소설 속 숲은 주인공의 죽은 아이가 묻혀 있는 장소이며, 주인공 본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 찾았던 장소이기도 하다. 해서 본인은 초반 작업 과정에서 소설 속 영향을 받아 숲이 주는 어두운 부분들에 더욱 집중 하게 되었고, 제목 또한 죽음과 관련 된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다. 성불(成佛)이란 사전적 의미로 깨달음에 이르러 부처가 되는 것<sup>10)</sup> 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인에게 성불이란 제목에는 ‘그 곳에선 신과 함께 하길’ 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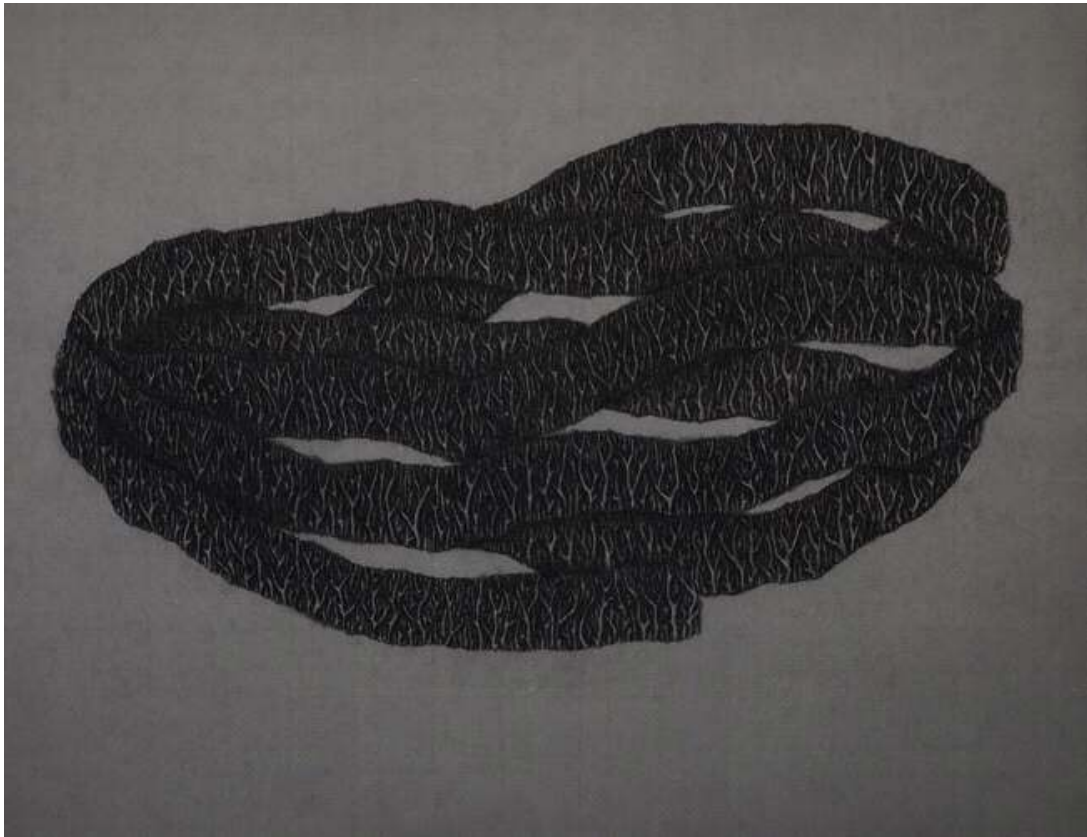
앞서 본 【작품 1】, 【작품 2】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의 작업은 흑백으로 가득 채워져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 까지 느껴지게 한다. 본인이 이렇듯 다른 색을 사용하지 않고 흑백에 집착하는 것은 본인에게 중요시 여겨지는 그리는 행위와 그려지는 이미지에 담긴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색감이 흑백이었기 때문이다. 재료 또한 단출하게 먹과 목탄, 콩테(conte)만으로 그린다. 장지 위를 건식재료인 콩테로 긁어내듯이 그리다보면 종이 위에는 긁혀 올라온 종이 표면들이 마치 나무의 표면처럼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진다. 타자는 본인에게 이러한 종이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걱정하며 다른 재료 선택을 권유했었지만 본인에게는 이렇듯 우연을 통해 일어난 질감표현이 작업방향과 적절히 들어맞는다 생각하여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찰필(Paper stump)로 그려진 부분을 더 문지르거나 종이를 비비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렇듯 재료는 내용을 반영하고 드러내어 주는 형식으로 사용되며, 물질로서 작품의 기본구조를 이룬다.<sup>11)</sup> 본인의 작업에서도 재료가 주는 역할은 중요하다. 본인의 도피과정인 그리는 행위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때문에 복잡한 작업과정보다는 그리는 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재료가 중요했고, 하얀 종이 위에 목탄과 찰필 두 자루만으로 그려내는 그림은 본인에게 고도의 집중력을 일으켜 주었다. 개성표현을 위한 신중한 재료의 선택. 재료의 성격이해는 작품 제작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며 사용할 재료의 관찰과 이해 그리고 계획성은 철저하

10)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11) 최윤정, 「감성을 통한 자아표출과 공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12

게 이루어져야 한다.<sup>12)</sup>

【작품 3】 은 본인의 숲 시리즈 중 처음으로 이미지의 변화를 꾀했던 작품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종이 위에 먹으로 밑색을 칠해 배경에 깊이감을 더했다.



【작품 3】 escape\_장지에 목탄\_145.5x112.xcm\_2016

---

12) 최윤정, 「감성을 통한 자아표출과 공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12



【작품 4】 escape II\_장지에  
목탄\_145.5x56cm\_2016

escape는 달아나다, 탈출하다,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다 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본인은 escape란 작품의 이미지를 미로 또는 피비우스의 띠 형상처럼 그려놓았다. 본인의 작업은 반복적인 그리기 행위를 통해 내면의 자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본인에게 주어진 고독이란 감정을 마주하고 풀어 나아가는 과정이다. 때문에 【작품 3】의 이미지는 마치 작가가 스스로 만들어낸 미로에 빠져 달아나고, 탈출해내는 과정을 그림으로 풀어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속 미로에는 입구도 출구도 없다. 애초에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은 그 끝도 답도 없고, 우리는 늘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자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본인이 그려내고 있는 이런 뻘뻘한 나무의 숲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미로처럼 보일지 모른다. 숲의 바다에서 자아를 탐색해 나아가는 과정이 마치 인생이라는 커다란 미로 안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걸어 나아가며 내가 가는 이 길이 스스로가 진정 원하고 맞는 길인지 고민해 보고, 뒤돌아보며 헤매이는 과정처럼 느껴진다. 한 인간의 내면에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은 행동, 가치관, 사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의식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지각을 나타내주고 한 개인의 행동과 그 양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일생동안 스스로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가며 이렇게 형성된 자기 개념은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sup>13)</sup> 본인이 내면의 자아와 대화를 통해 형성해 나아간 자기 개념은 이렇듯 본인의 작품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고, 스스로 그려낸 나무 숲 속에서 끊임 없는 자아 탐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술을 통한 자아표현은 이러한 한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고 성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예술 경험은 내면세계 속의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들을 보다 솔직하게 외부로 드러내어 스스로에게 자유와 안정을 느끼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고 모든 요구를 정화하여 도덕적 인간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sup>14)</sup> 【작품 4】를 보면 【작품 3】의 부분을 오려낸 듯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본인에게 있어 자유와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숲이라는 공간을 멀리서 전체적인 모습으로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작품 3】이라면 【작품 4】의 이미지는 보다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내면의 고독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커다란 과제이자 삶의 과정인 자아의 인식과 표출에 대해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며 관심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13) 이혜숙, 「자아탐구를 통한 자아이미지 표현지도 탐색」,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9

14) 데이비드 베일즈, 테드 올랜드 『Art and fear』, 임경아 역. 루비박스 2012, p.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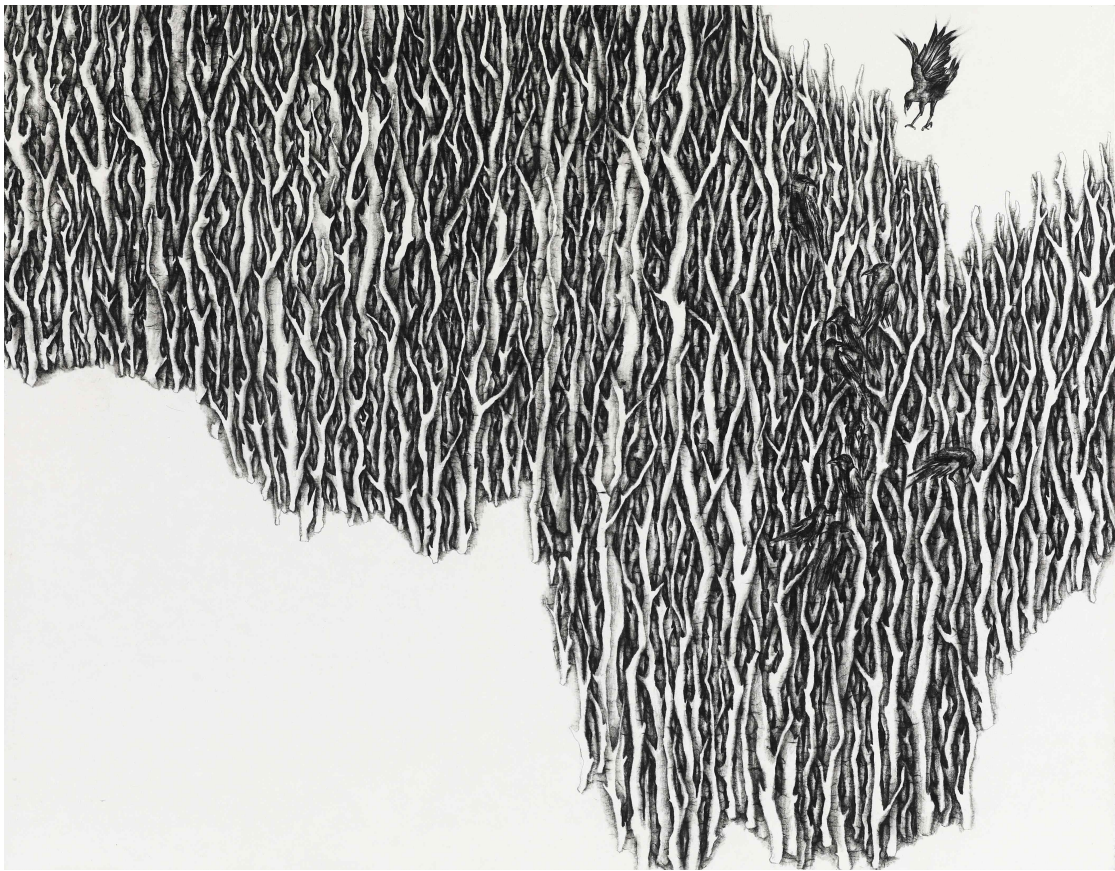
【작품 5】 성불\_장지에  
목탄\_100x80.3cm\_2016



【작품 6】 성불\_장지에  
목탄\_100x80.3cm\_2016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나무 이외의 개체가 들어 간 위 【작품 5】는 같은 소재와 반복적 이미지만으로 자칫 단조롭다 느껴질 수 있는 화면에 작은 변화를 주고자 시도한 작품이다. 본인의 작업에 나타나는 흑백의 이미지에 어떤 개체가 어울릴까 생각하다, 숲속에 있는 까마귀 이미지가 떠올라 그리게 되었다. 그림을 얼핏 지나치면 그 안에 있는 까마귀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숲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까마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작품 6】은 보다 더 흥미로운 그림이다. 【작품 6】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작품 1】, 【작품 2】, 【작품 5】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작업은 2016 기존의 【작품 1】, 【작품 2】, 【작품 5】 작업을 완성한 후 작업실 한쪽 벽면에 세워 두었는데 그림들이 겹쳐져 있는 모습이 또 하나의 독자적인 그림처럼 느껴져 그 모습 그대로 종이에 옮겨낸 작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 속의 3점의 각기 다른 그림들은 모두 본인이 그려낸 숲인데도 불구하고 그 숲의 분위기, 선묘 등이 모두 다르다. 본인의 작업은 그때 그때의 감정과 상황을 반영하기에 이렇게 마치 다른 사람들이 그려낸 듯한 느낌을 준다. 어떤 날은 뻑뻑하게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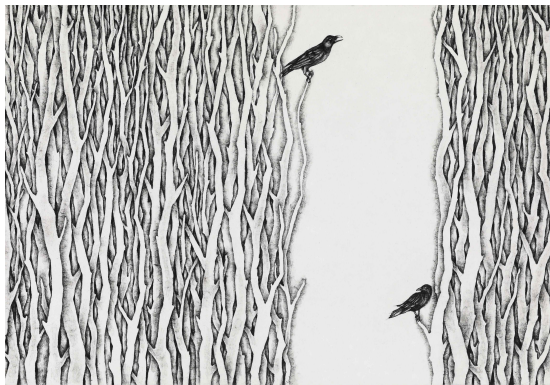
편 날은 느슨하게, 어떤 날은 어둡고 또 어떤 날은 밝고 따듯하게 말이다. 본인이 의도한 분위기와 선묘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려나가는 반복적 행위 안에서 본인의 감정상태가 녹아져 나와 이렇듯 자연스럽고 생명력 까지 느껴지는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작품 7】 까마귀가 날아도 배는 안 떨어진다\_장지에 목탄\_116.8x91cm\_2018

까마귀가 들어간 대표적 작품 중 하나인 【작품 7】 은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을 들으면 단번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이 떠오를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는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sup>15)</sup> 본인의 작품 속 공간에서의 주인공은 오롯이 본인 자신이다. 이 공간 안에서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오해도 관계 사이의 트러블도 없다. 현실에서 갖은 오해와 의심으로 멍들고 지친 마음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곳이다. 때문에 작품속의 공간에서는 까마귀가 날아도 배가 떨어지지 않고, 배가 떨어지더라도 누구도 보는 이가 없다. 【작품 7】을 그려나갈 당시에 본인은 인간관계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부적절한 일들에 휘말리며 큰 곤욕을 겪던 시기였다. 본인과 관계없던 일들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의심을 받고,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된 안 좋은 시기였다. 그런 시기들을 겪고 나니 더욱 더 본인 스스로를 가두며 고립되어지기를 바랐고, 그런 감정으로 나무를 그려나가다 보니 이처럼 요동치는 듯 한 숲의 높낮이가 생기고, 나무들도 다른 그림들에 비해 더욱 열기 설기 강렬하게 얽혀있다. 구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나무의 진행 방향은 리듬감또한 느껴지게 한다.



【작품 8】 초행길\_장지에  
목탄\_72.7x60.6cm\_2018



【작품 9】 발자국이 남지 않는  
길.미디어.2018

15) 표준국어대사전

자아를 찾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 길을 들어서면 모든 이들의 초행길을 생각하며 작업한 【작품 8】과 【작품 9】는 작업이 나에게 주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 정의해 보며 그려낸 작품이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은 언제나 본인에게 평온한 시간을 주었다. 그 평온이라는 감정은 일상속의 스트레스를 모두 잊고 무념무상의 감정을 주기도 하고, 고요한 작업의 순간 내면의 자아에 대해 깊게 탐구해 보는 시간을 주기도 했다. 본인에게는 언제나 고독이라는 감정이 본인의 내면 한 곳에 큰 존재감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독이라는 단어 자체는 자칫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본인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고립되어 지면서 진정으로 고독감을 느낄 때 자신의 자아와 대화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여기에서 고립(isolation)이란 타인과 분리된 물리적,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데, 사람은 어떤 행위와 방식으로든 타인과 밀접히 지내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주관되고 독자적인 삶을 원하는 충동을 겪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고립감은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에 한 개인의 내면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불가피한 감정인데 이러한 불가피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용기는 그러한 고립감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해내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립감과 소외를 가지고 살아간다. 과거 좁은 인간관계와 달리,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일상 속에서 접촉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와 인간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립감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본인이 작업 속 공간에서 얻는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고립감을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도피처 말이다. 어떤 이들은 여행은, 어떤 이들은 누군가와 의 소중한 만남을, 또 어떤 이들은 휴식과 여가생활 등 개개인이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과 방법들은 각자 다양

하다.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자아와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그러한 자아를 표출해 내고, 소통하게 된다. 본인의 작업에 있어 고독이란 필수 불가결하고, 그 고독을 풀어 나아가는 과정에 본인의 반복적인 작업 과정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선들과 이미지들, 복잡하고도 단조로운 이중적인 메시지들은 본인이 작업으로서 이끌어 내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 해준다. 특히 【작품 9】의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작품 속엔 분명 누군가가 숲으로 걸어 들어간 듯 발자국이 뚜렷이 남아있다. 그러나 정작 제목은 ‘발자국이 남지 않는 길’이다. 각자 스스로가 만들어낸 내면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발자국은 각자의 내면에 남겨질 뿐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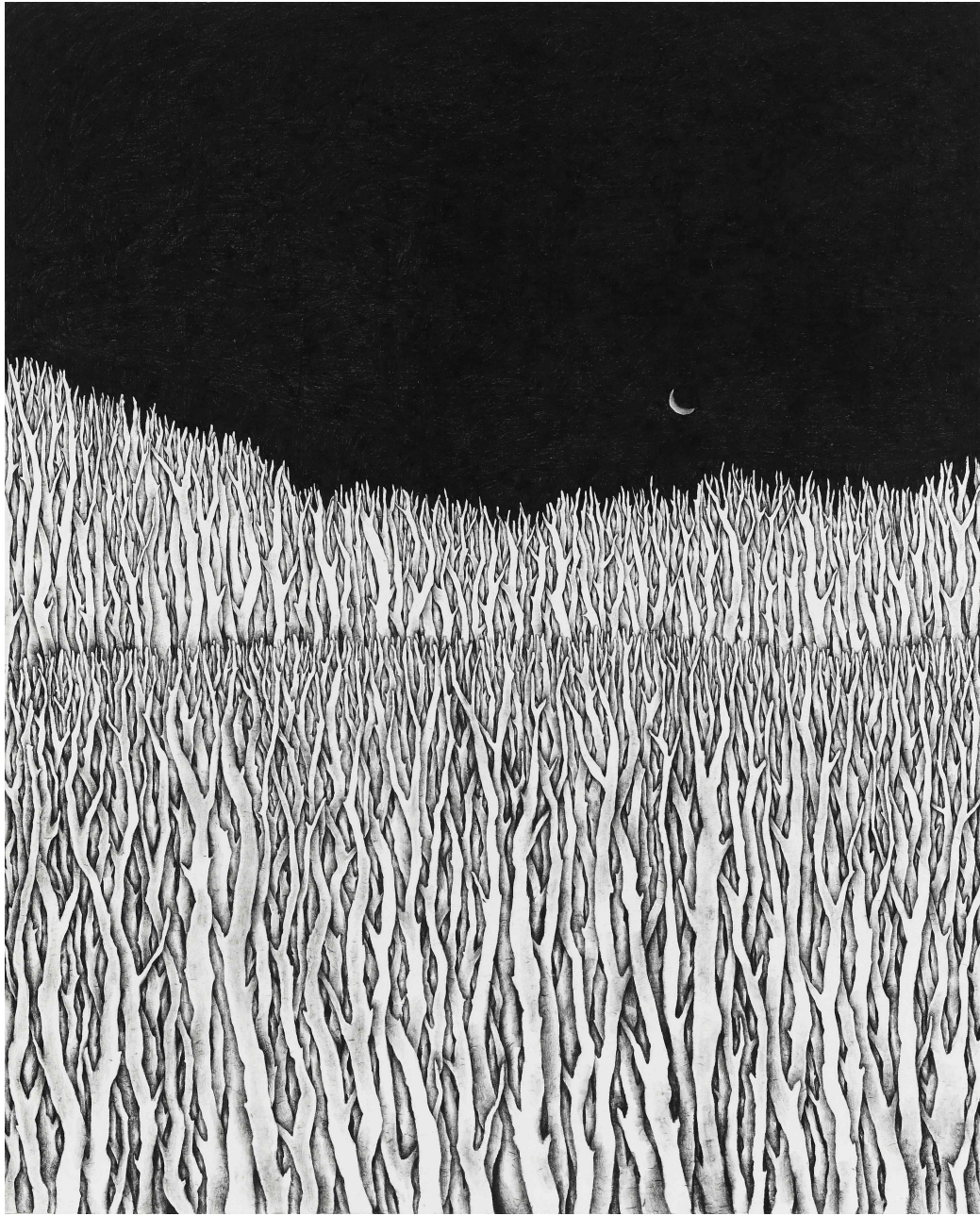


【작품 10】 empty forest\_장지에 목탄\_100x80.3cm\_2018

2호짜리 작은 화판에 새까맣게 드로잉 하며 만들어진 【작품 10】은 답답하고 어지러웠던 마음을 어둡고 까만 숲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숲을 그리고 그 위에 목탄으로 여러 번 덮어내며 작업하였다. 너무 어두워 나무의 형태도 뚜렷하지 않고 답답하게만 보여진다. 반복적인 그리기 행위를 통해 숲을 채워 나가면서 그림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어지러웠던 마음들은 하나씩 전등을 꺼 내려가듯 잠잠해진다. 이처럼 예술 창조자라면 자아보다 더 큰 문제들을 안고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감(靈感)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극으로, 혹은 절망감으로 예술을 창조한다. 따라서 사실상 예술창조란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찾는 세계와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본인이 예술을 창조해 냄으로써 찾는 세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개개인이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내적 도피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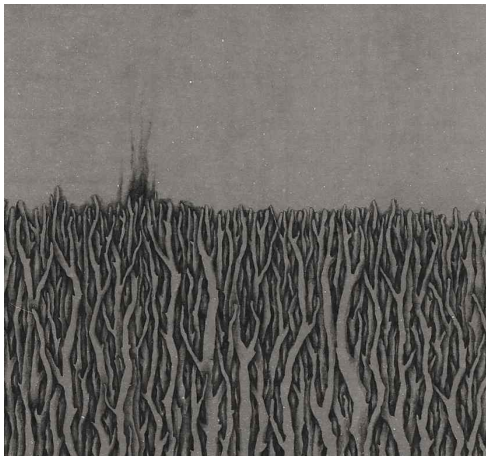
---

16) 이혜숙, 「자아탐구를 통한 자아이미지 표현지도 탐색」,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13



【작품 11】 하얀밤\_장지에 목탄\_162.3x130.3cm\_2018

이전 작업들은 주로 화면을 가득 채우거나, 그리는 이의 정서가 담긴 굴곡으로 구도를 만들어 나가곤 했다. 【작품 11】의 <하얀 밤>에는 빈틈없이 까만 하늘이 이전과는 다르게 특징적으로 보인다. 하늘이라는 공간도 생기고, 달도 나타나면서 풍경화 같은 요소들이 생겨난 것이다. 까만 하늘과 숲의 밝기가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이전까지는 본인이 그려내는 숲이 매우 어둡고 흑(黑)빛이라고만 생각했다. 본인의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그림에 풀어내면서 그림은 자꾸 어두워지고, 그림을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어두운 분위기라는 평을 많이 들었다. 본인의 감정을 담아내는 작품이니 만큼 가장 솔직하고 가장 꾸밈없이 그려내고 싶은 그림이었는데, 막상 어두운 이미지로만 비춰지는 것이 내심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었다. 여러 고민 끝에 과감하게 시도한 까맣게 색칠한 하늘은 본인의 작품 이미지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본인은 항상 본인이 저 까만 숲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고립되어지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다 비워진 마음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라 상상하며 그러한 공간을 반복하여 그려나가곤 한다. 본인의 이러한 이상의 공간은 무겁고 힘든 감정으로 그려내면서 정작 숲이 주는 가치와 의미는 긍정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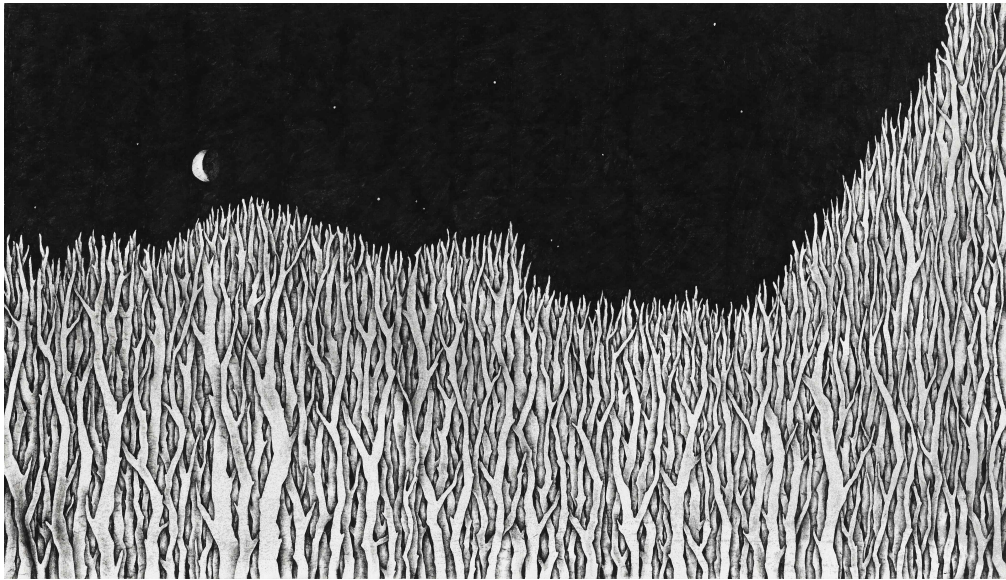


【작품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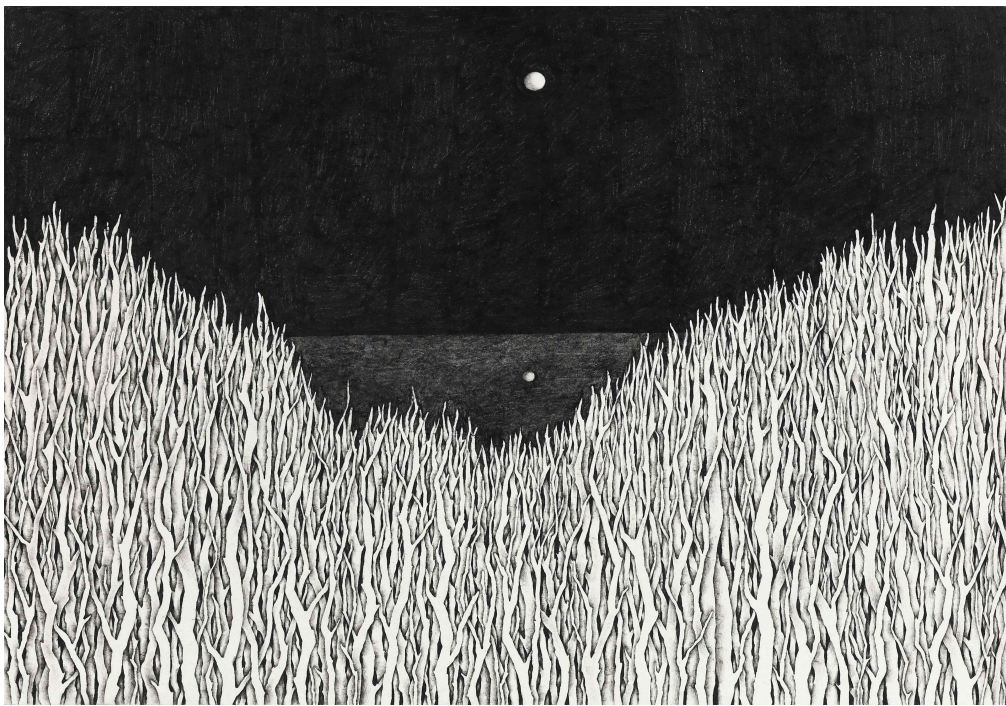
발화점\_27.3x22.0cm\_장지에 목탄\_2018

작업 중인 작가는 그가 선택한 대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보아왔거나 상상되어진 미적 대상을 선택하여 그것을 강조하여 표현하게 된다. 이처럼 예술 작품에서 이미지는 내적 필연에 의한 형상의 표출이나 혹은 정신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sup>17)</sup>

17) 이보연, 「자아이미지의 시각화에 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30



【작품 13】 하얀밤II\_장지에 목탄\_130x48cm\_2018



【작품 14】 호수가 있는 밤\_장지에 목탄\_116.8x91cm\_2018

【작품 13】, 【작품 14】에서 느껴지듯이 숲이라는 이미지만 존재 했을 때에는 어둡고 칙칙해 보였던 숲이 까만 하늘 덕에 밝은 숲처럼 느껴진다. 남들에게 그저 부정적으로만 느껴지게 하던 숲이 밤하늘이라는 다른 비교대상을 만나 하얀 숲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숲이 어둡지 않을 뿐더러 달빛에 나무들이 환하게 비춰진 듯 밝아 보이기까지 한다. 비로소 본인이 추구하던 숲의 존재 가치와 상응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하얀 밤>이라는 제목으로서 본인이 작품에 대해 느끼는 심적 이미지를 나타내어 준다.

나는 여러 무리에 속하지만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은 친구가 아주 많은 것 같지만, 가끔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즐거워 보이지만, 가끔 너무 슬프면 혼자 숨어버려요.<sup>18)</sup>

언젠가 sns를 통해 접한 책에서 읽게 된 위 구절은 늘 시끌벅적 하지만 공허한 본인의 마음상태를 잘 대변해주는 구절이었다. 【작품 11】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면 이리저리 구멍나있는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남들의 눈에 비춰질 스스로의 모습에 긴장하며 지쳐있는 마음이 숲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그려나가는 행위 자체로 충분히 큰 치유와 자아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을 다해 그려내 완성한 그림은 그리기를 끝낸 후에도 오래오래 남아 자아가 성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게 될 것이다.

---

18) 레이첼 시먼스. 『소녀들의 심리학』. 정연희 옮김. 양철북. 2011

### Ⅲ. 결 론

미디어와 매체의 발달로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아를 표출해 내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무분별한 소통의 창들 속에서 각자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다. 자아를 표출해내는 행위는 스스로의 자아에게 솔직하며 꾸밈없이 마주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렇듯 자아표출에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며 본인의 자아표출 방법인 반복적인 그리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았다. 자아를 탐구해 나가는 일은 일생동안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제임과 동시에 한 개인의 내면과 끝없이 마주해 나아가야 하는 과정이다.

본인은 화목한 가정과 남부럽지 않은 교우관계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한 본인에게도 늘 말할 수 없는 고민들과 마음의 짐들은 존재했다. 그러한 감정표현의 내색이 서툴렀던 본인은 늘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웃는 얼굴로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러한 방법은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아가 병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했다. 창작 예술이라는 행위를 하는 작가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짐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솔직해 질수 있는 방법이었고, 반복적 그리기 행위는 어지러운 감정을 정리하는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본 논문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작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작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그 작품이 만들어지기 까지의 작가 본인의 배경, 내적 변화, 작업을 대하는 적절한 책임감과 애착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 완성되고, 그 작품 안에는 작가의 자아가 거짓없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가는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들에게 작가 나름의 자아를 표출해 내고 있고, 관객들은 그 작품을 감상하며 내면의 자아들을 투영시켜

각기 다른 방식들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감정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치유하길 원하고, 각자의 내적, 외적 행위들을 통해 해소해 나아간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본인에게 있어 반복적 그리기를 통해 만들어진 숲이 주는 역할과 같은 도피처를 찾기를 바라고,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 내면의 자아를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은 지속적으로 본인의 자아와 마주하고 표출해 낼 수 있는 행위와 방법을 갈구하며 작업을 해 나아갈 것이고, 그러한 건강한 감정을 통해 본인의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내면과 마주하여 자기 인식의 시작점이 되어지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조요한, 『예술 철학』 미술문화 2003
- 데이비드 베일즈, 테드 올랜드 『Art and fear』, 임경아 옮김, 루비박스, 2012
- 레이첼 시먼스. 『소녀들의 심리학』. 정연희 옮김. 양철북. 2011
- 히가시노 게이고, 『공허한 십자가』 이선희 옮김, 자음과 모음, 2014

### 학술자료

- 이나영 「추상미술과 자아의 감성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보연 「자아이미지의 시각화에 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혜숙 「자아탐구를 통한 자아이미지 표현지도 탐색」 서울교육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1
- 장시울 「선(線)의 반복을 통한 생명 이미지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최윤정 「감성을 통한 자아표출과 공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1996

### 사이트

<http://www.galleryhyundai.com/?c=artist&s=1&gbn=view&gp=1&ix=70> , 갤러리  
현대.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http://stdweb2.korean.go.kr)

## ABSTRACT

### **A Study in Expression of Self through Repeated Actions**

Jung, Eun-J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based upon the exhibition “Where it is okay to be menial” in 2018, where I sought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repeated behavior as a means of self expression through a series of paintings featuring intertwined lines and images.

My main focus in my work was on the compilation of repeating images and patterns. While this could have been no more than the simple act of drawing lines, the distinction with the obvious is that within every stroke and pattern, there lies a different emotion.

Just as every page of a diary conveys a unique sentiment of a single day, the repeated act of painting functions as a tool for me to

better understand and express my inner self. Rather than from painting unquestionably different things, the slightest stirrings in the emotion become glaringly apparent from what appear to be very similar patterns, for small changes in detail are much more evident between similar images.

While I had experienced emotional difficulties being wholeheartedly honest to myself along the course of my personal growth, attempts to create my own ideal space on the canvas with repeating motifs have come to result in somewhat of a shelter from the unyielding turbulence of life. It was in this shelter where I could finally be free from hurtful experiences, and it was here I could reveal my true unmasked self.

It is every individual's task of a lifetime to find one's true self and to achieve personal growth as an independent being. For me, the task was actualized in the form of art. As I strove to reach my true self, unhindered by the influence of others, I have come to realize that it is not an easy task for one to overcome the bashful nature of inner self.

Through the act of painting, I have attempted to suggest a way for people to find peace and express their inner selves in this ever-changing modern world, where we are flooded and confused with perhaps "too much" diversity of media.

Starting from early stages of painting when most of the work involves simply packing the canvas with lines, which later lead to final stages where what were once single entities merge to form unique compositions, it was possible to observe my emotional changes in depth. Furthermore, through subsequent work activity in a similar style, I was abl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repetitive painting on emotional